“대행 선사 수행·전법, 계바라밀 실천 자체”

법장 스님, 대행선연구원 제16회 계절발표회서 주장

‘한마음요전’의 대행선사 계행 분석
“대행 선사 계행은 보살계”로 파악
삶에서 참된 계바라밀 실천 이끌어
“선사의 治病, 보살행의 실천” 강조

이상호, 주인공 원리·관법 구조 고찰
“대행선, ‘一原多觀 禪法’ 특징 가져”
안양본원 선법가합창단 소개 시간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발표를 하고 있다.

부처가 되는 실천행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의 기본 중 하나가 ‘계바라밀(戒波羅蜜)’이다. 특히, 계바라밀은 계의 실천이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의 완성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강조해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행장과 가르침을 담은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선사의 계바라밀 실천행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을 통해 대행 선사의 행장 속에 나타난 보살행과 전법을 계율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선사의 삶 안에서 계바라밀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규명했다.

대행 선사는 1950년 3월 27일(음력)에 오대산에서 한암 선사에게 정식 수계를 받고 출가자가 됐고 이후 종단 승적과 무방하게 수행을 이어갔으나 탄허 스님의 권유를 받아 승적을 회복했다. 〈한마음요전〉에는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수지한 것으로 종단에서 승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의 출가와 수계를 율장에 근거해 논하기보다는 “선사가 수행자로서의 삶과 전법을 보살의 모습으로 보고 보살계를 통해 논해야”함을 분명히 했다. 보살계의 핵심은 보살의 바라밀을 위한 것이기에 일정한 형식에 맞춰 지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연민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의 삶에 나타난 수행과 전법이 ‘보살의 바라밀’과 연결되며, 계율에 있어서도 지지계(止持戒)가 아닌 작지계(作持戒)의 관점에서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고 봤다.

법장 스님에 따르면 〈한마음요전〉에서 계율에 대해 대행 선사는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경계가 계율이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 계율의 토대’라고 설한다. 이는 ‘계를 두려워해 중생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를 범한 것이 되고, 계를 없다고만 여겨 함부로 한다면 이 역시 계를 잃는 것이 된다’는 원효 스님의 설명과도 맞닿는다.

그렇기에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가 행한 치병(治病)도 ‘중생의 간절한 요구에 응한 보살행’으로 봤다. 법장 스님은 “대행 선사는 치병으로 당장의 고통을 해소한 이들에게 그 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이 대행의 진정한 치병”이라며 “이런 대행 선사의 보살행은 그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현실화한 방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수행과 전법은 그 자체로 불법을 실현한 것이고, 보살계를 실천한 것이다. 불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고 보살계는 처해진 상황에서 불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라며 “대행 선사는 마음의 치료를 통해 중생들을 참다운 치병으로 이끌었다. 만약 선사가 지금 전법을 펼친다고 해도 시대에 맞는 방편을 보였을 것”이라고 봤다.

“아무리 오묘한 법을 깨친다 하더라도 중생과 더불어서 아니면 도가 될 수 없다. 깨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을 상기시킨 법장 스님은 “이 법문 속에 선사가 보여준 보살행과 계바라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면서 “수행자로서 계행조차 아끼지 않았고, 일생을 통해 보살행을 펼친 대행 선사의 모습은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삼귀의례를 하는 참가대중들.

이와 함께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을 발표한 이상호(서강대) 박사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과의 상관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행선 정체성 정립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공 원리는 생명, 마음, 육신이 삼합이 돼 서로 공존하면서 작용하는 순위연동형 구조와 삼위일체형 구조를 가지며, 관법은 방편으로써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관구조를 통해 확인되는 대행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은 “하나의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여러 관법 수행체계를 갖춘 선 수행법”인 ‘일원다관(一原多觀)의 선법(禪法)’이라는 게 이상호 박사의 주장이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논평자로 참여해 각각 논평을 진행했다. 또한 발표 이후 진행된 한마음선원 지원·단체 소개에서는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소개됐다. 발표는 김진용 합창단장이 맡았다.

계절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가 설하신 오계를 상기시키며, 계율 실천을 강조했다. 혜수 스님은 “우리 삶에서 주인공을 잘 관(觀)하고 일체를 근본 주체에 놓아가면 그것이 저절로 계율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대행 선사께는 늘 말씀을 하셨다”면서 “한마음선원의 대중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선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시 받들며 오계를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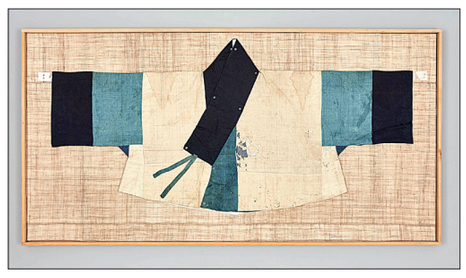
이어 “오늘 계절발표회에서는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 선사의 계바라밀을 살핀 법장 스님의 발표가 있다. 이상호 박사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면서 “논문발표와 논평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귀중한 인연이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발전하는 연구원의 모습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혜선 스님은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계바라밀을 분석하는 등 귀중한 연구성과가 담긴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 같은 논문들을 보면 연구원이 나날이 진화·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선양하는 데 연구원장으로서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말했다.

산 속에 피어난 절, ‘월정사’를 만나다

춘천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12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서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108점 전시… 프로그램 ‘다채’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언해본. 세조와 정희왕후, 세자, 전·현직 고위관료 등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조선 초기 한글 연구의 중요 자료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물인 명주적삼과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물인 회장저고리. 이번 특별전에 최초로 공개된다.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재열)과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9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대산에 자리한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절, 산 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강원의 불교 신앙이 탄생한 자연, 즉 산과 산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오대산은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며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라고 여겨졌다.

다섯 봉우리로 둘러싸인 오대산에는 봉우리만큼 여러 개의 중심이 있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부처의 사리를 산에 봉안했다고 전하는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창건한 오대산의 중심 월정사, 조선 세조(世祖)와 문수동자의 만남을 간직한 상원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다섯 봉우리에서 머무는 5만여 부처와 보살을 모시는 암자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기억을 품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대산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하여 산이 품고 있는 불교문화의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공유한다.

국보 1건, 보물 7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13건 등 총 57건 108점의 강원지역 중요 문화유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서는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오대산과 신앙의 핵심이 되는 적멸보궁, 월정사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오대산의 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 찬란하게 빛난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1부에서는 또 다른 성산, 금강산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2부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는 산봉우리에 올라 신앙의 정점을 만나는 공간이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졌고, 조선 왕실에서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산 사찰과 암자를 후원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안에서 나온 적삼은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조선 세조의 피부병을 치료한 문수보살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3부 ‘산 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는 산 너머의 풍경을 조망하는 시간이다. 오대산은 불교문화뿐 아니라 조선의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실록〉도 품고 있었다.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사고의 흔적을 만나보고, 산 너머로 시선을 옮겨 다른 지역 승려와 함께 한 불사(佛事)를 살펴본다.

특히 월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로 강원도 남부의 사찰과 암자를 관할하였다. 전시에 소개된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강원도 여러 지역의 성보문화재는 산 너머 사찰간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이 공간에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킨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의 필적도 만날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은 탄허 스님의 글씨이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을 의미하는 ‘화리생련(火裏生蓮)’은 고난을 딛고 다시 대가람을 이룩해 강원도 불교 문화의 중심이 된 월정사를 대변하는 말이다. 스님의 선필(禪筆)에 담긴 강한 의지를 마주한 뒤에는 오대산 자락에 내재된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 복장물과 권선문들을 눈여겨 볼만 하다. 상원사 중창을 위해 세조와 그의 비 정희왕후, 세자를 비롯해 200여 명의 전·현직 고위관료가 자신의 이름을 적은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은 조선 초기 한글 서체 등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다.

1466(세조 12)년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1661년(현종 2)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이번 전시를 위해 함께 사찰 밖을 나선다. 두 상 안에서 나온 명주적삼과 무문사적삼, 회장저고리 모두 산문 밖 전시는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오대산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상과 교육도 준비돼 있다. 16K 초고화질 실감영상카페 ‘지금 여기, 휴(休)’에서는 ‘이야기의 숲, 오대산을 거닐다’도 새로 공개한다. 이 영상에서는 조선 19세기 그림을 바탕으로 재현된 오대산사고와 월정사의 전경을 비롯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의 산은 고립의 공간이 아닌 풍부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강원 불교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香으로 느끼다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내년 2월까지
‘백제금동대향로3.0…’ 향 문화 조명
발굴 30주년 맞아 ‘백제의 향’ 재해석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올해로 발굴 30주년을 맞았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는 주차장 공사를 앞두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추운 겨울, 조사연구원들은 발굴 현장에 흘러드는 논물을 고랑을 파 끌어내며 힘겹게 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기와와 뚜껑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0여일의 처리 작업을 마치며 연구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젠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인 백제금동대향로가 모습을 드러내서다.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은화수)은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특별전 ‘백제금동대향로3.0-향을 사르다’를 내년 2월 12일까지 개최한다.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 기념 특별전 ‘백제금동대향로’, 20주년 기념 특별전 ‘하늘에 올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를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향(香)’에 주목하여 백제금동대향로의 연구 성과를 3.0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간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의 향 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나라의 향 문화는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향로와 향문화’ 학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찾은 백제의 또 다른 향로와 우리나라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향로를 한데 모아 이번 특별전에 선보인다. 또한 백제금동대향로의 향을 구현하고자 향기 작가와 함께 백제의 향을 재해석하여, 전시 공간을 센테리어(Scenterior, 향기(Scent)와 인테리어(Interior)가 결합된 용어)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향’은 설레면서 그리운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순식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6세기 중반, 전쟁의 참패와 성왕의 죽음으로 위태롭던 백제에 마음을 움직이는 향은 상처받은 백제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었을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가 건네는 ‘치유’의 향이 관람객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민화 ‘평생도’

문수현 씨 작품…10월 18일부터 전시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문수현 씨의 민화 ‘평생도’

천태종이 주최하고 천태문화사업단이 시행하는 제8회 천태예술공모대전에서 문수현 씨의 민화 ‘평생도’가 대상(문체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예술공모대전 심사위원회(위원장 전연호)는 9월 16일 앞서 접수된 작품들을 심사해 수상작을 이 같이 선정했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은 송안섭 씨의 조각 작품 ‘관세음보살상’이 선정됐다. 부문별 우수상으로는 전통불화 김성희 씨의 ‘영산회상 괘불도’, 현대불화 김민지 씨의 ‘존재에 대하여’, 공예 조각 김광현 씨의 ‘윤회 그리고 해탈’, 민화 이경덕 씨의 ‘선정에 든 나한의 미소’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대상 수상작은 민화의 도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주제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공력을 들인 작품으로 평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수상작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